

權重求 씨의 漢文大綱(冊) 復刊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문 문장의 출전을 찾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준력을 받아 이명학 교수가 읽기 좋도록 문맥을 다듬었다. 이 한문책은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初學者用 入門書로 1970년대 상황으로 보면 이 책은 가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權泰康 김교공과총회장의 부친인 한문 학자 愛山(애산) 權重求씨(1914-1977)의 저서로 1971년 漢文大綱(500p)이란 冊을 간행한 것을 40여년이 지나 지난 2011년 5월 30일 도서출판 보고사(株)으로 이명학 성균관대한문교육과교수의 복간으로 다시 발간했다.

또한 漢文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문 문장의 출전을 찾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준력을 받아 이명학 교수가 읽기 좋도록 문맥을 다듬었다. 이 한문책은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初學者用 入門書로 1970년대 상황으로 보면 이 책은 가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漢文 文法에 관한 기본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백여개의 한문문장을 실례로 들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이하여 初學者라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英語 문장과 대비하여 漢文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거나 英語를 통해 漢詩를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한 것은 지금 보아도 놀랍고 이채롭다.

누구도 이러한 작업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당시에 그야말로 初學者들을 위해 엄청난 양의 동양 고전, 좋은 문장을 가려낸 후 체계로 세우 漢文入門書를 출간한 愛山 권중구 선생의 사명의식과 정열은 후학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다.

- △애산 권중구(1914-1977)의 약력
- ◎한문수학
- ◎보성전문학교 상과졸업
- ◎서울대상과대학교수 조무
- ◎대청中, 교감역임
- ◎동아일보 全 朝鮮 남녀학생작품전람회 서부 1등

(자료제공 : 권태강 김교공과총회장)

古訓新鑑

▣ 입암서원유사 권태수

第一章 善行

꾸준히 착한 일을 행하라

착한 행동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선량하게 지니 나간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몹시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꾸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찌 해줄 수 있겠는가? 사람은 마음을 가꾸기 위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만 선량하게 수양하면 자연히 모든 행동은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우선 마음부터 선량하게 가꾸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達昭烈이 將終에 勅後主曰勿以善小而 不爲하고 勿以惡小而爲之하라. (明心寶鑑) 한(漢)나라의 소열왕(昭烈王)이 죽을 때 후주에게 勅(勅書)을 내려 말했다. "착함이 작다하여 아니하지 말고 악함이 작다하여 하지 말라."

[解説] 이 글은 삼국지(三國志)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촉한(蜀漢)의 소열왕이 임종할 때 아들 후주(後主)에게 경계하여 이룬 말이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행하고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몹시 중요한 얘기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에 수많은 행동을 한다. 따지고 보면 대개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소한 행동이 모두 선(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닦는 길인 것이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자도 이따금씩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을 때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起니라. (明心寶鑑)

-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解説]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착한 생각은

곡식이요, 악한 생각은 잡초라 곡식을 잘 가꾸어 좋은 수확을 얻으려면, 잡초가 붙어는 대로 이를 뽑아내어야한다. 만일 잡초를 그대로 두면 원래 잡초는 성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윽고 그 밭은 잡초만이 무성한 목밭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사람의 마음을 텅 비워 둘 수가 없는 것이라 착한생각이거나 악한생각이거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마음이 방이려면 생각은 그 방의 주인이다. 그런데 착한생각과 악한생각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방에서 함께 살지 못한다. 착한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악한생각이 쫓겨나고 악한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착한생각이 쫓겨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착한생각만을 귀한 손님처럼 마음에 모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 사이에 온갖 악한생각의 잡초들이 뿌리를 내리게 마련이다.

馬援曰 終身行善이라도 善猶不足이요 一日行惡이라도 惡自有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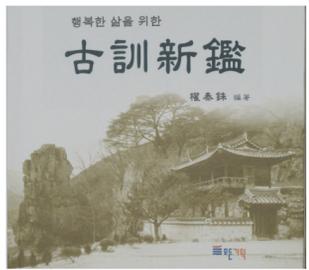
(明心寶鑑) -마원(馬援)이 말씀하시되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여도 착한 일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 동안만 악한 일을 하여도 악함은 스스로 남음이 있다.

[解説] 선(善)을 많이 할수록 좋고 악(惡)은 행하지 않을수록 좋다. 그러므로 설사 일생동안 꾸준히 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오히려 선은 부족하며 그러고 평생 동안 선을 행하고 단 하루의 악을 행한 일이 있어도 그 악함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회한(悔恨)에 잠기게 한다.

중자(曾子)는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실을 반성했다고 한다. 우리는 하루의 생활이 끝나면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좋은 일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후회되는 일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例話]1 -三童子(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당나라의 백낙천(白樂天)은 유명한 시인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다. 원래 학문이 뛰어난 데에다가 벼슬이 높아지자 자만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

백낙천이 항주지역을 다스리는 지사



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근처에 '조과선사' 라는 당대 이름난 고승(高僧)이 살고 있었다. 당시에는 지식과 견문에 있어서 백낙천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백낙천은 '조과선사' 를 시험해 볼 양으로 선사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다. '조과선사' 는 청명한 날이면 소나무에 올라앉아 좌선(坐禪)을 하는데 그 날도 나무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본 백낙천이 불안하여 '조과선사' 를 물러다보며 "선사님 몹시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십니다. 내려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조과선사' 는 "그대가 더 위험하네." "저야 벼슬이 이미 지사에 올랐고 또 이렇게 안전한 땅을 밟고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오?" 백낙천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를 했다.

'조과선사' 는 백낙천이 학문과 벼슬에 대한 자만심이 대단한 것을 이미 알고 그의 교만함을 꾸짖고 깨우치기 위하여 "티끌만한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치솟고 번뇌와 욕망의 불길이 쉬지 않으니 그 어찌 위험하지 않은가?"

백낙천은 자신의 마음을 깨우는 듯한 선사의 논매와 지사라는 자신의 벼슬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다하는 선사의 태도에 그만기가 놀려 애초에 선사를 시험하고자 했던 마음을 바꾸어 공손하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제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갈 법문을 한 구절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니 '조과선사' 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실망하여 대답하기를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선사는 침착한 어조로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백낙천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투고

결초보은

▣ 南溪 權赫重(추밀공파 36세손)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날마다 자기가 먹는 성찬(盛饌) 보다는 자식의 앞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법이고, 설사 자신들은 굶어죽는 일을 당할지라도 자식들의 출세나 평안무사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들의 한결같은 욕망으로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피부가 닳아져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져 골수에 이르도록 효성을 다해도 그 은혜는 모두 갚을 수 없으므로 사후이라도 보은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장께서는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조부모 손에서 양육되다가 12세 되던 해에 그 조부마저 세상을 떠나자 선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조부의 큰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부의 안락한 유택(묘소)을 구해드리고자임동설한의 산야를 3개월 동안 헤매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기에 신명(神明)이도왔는지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인 입신양명의 뜻을 이루어 대법원장에게까지 오르지 아니했나 싶다.

나는 1977년 어느 날 조상님 한분의 묘소를 이장하기 위한 일로 부여에 살면서 30여 년 동안 주역(周易)과 기상을 공부한 후 풍수지사가 된 노인을 몇 차례 만난 일이 있었다.

그 노인은 묘소 앞을 지나면서 그 후손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길흉화복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노인이 알아맞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현혹되어 나도 남에게 속지 않을 만큼 풍수지리를 배워 조상님들에게 결초보은이라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희소식

권경채 씨의 '시큐리티 20초'

도난방지시스템 발명특허



권경채 고문

33世·살림기업경영총괄고문)가 5년여년간 주·야간 분골쇄신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드디어 성공한 도난방지시스템(시큐리티 20초) 상품이 지난 9월 23일 대한민국특허청 청장으로부터 특허(제10-1068859)호 등록이 되어, 국내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화제의 상품, 도난방지시스템(시큐리티 20초)은 국내유일무일한 발명 특허품으로서 범인이 야간에 문을 열거나 벽을 부수거나 혹은 지붕이나 바닥을 뚫고 침입하는 순간 센서가 곧바로 작동해 20초만에 침입자를 골짜기처럼 포박하는 최신 도난방지 시스템이다.

경찰서나 경비업체 등에 즉시 자동연락이 되며 경광등도 경고음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서 전선이 끊어져도 3시간 이상 전기공급이 가능한 축전지를 내장한 것

도니 도난방지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제품의 작동은 먼저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공간(금고, 금방, 보석상 등)에 범인이 침입하는 순간 센서가 작동하면서 20초안에 고압연기가 뿜어져나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그물총)이 자동 발사 된다.

범인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 갇혀 발버둥치는 사이에 건물 밖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하게 되고 사전에 연결된 경찰서와 방범초소, 경비업체, 주민집에 연락되도록 고안된 것이 '시큐리티 20초'의 제품이다.

최근 1-2분 사이에 CCTV라인을 끊고 금방 탈출을 할 수 있는 신종 금방 탈출방법도 모조리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매들을 찾아 땅이 생동(生動)하는 자연현상을 실감하면서 고래로 전래한 풍수지리가 한낱 미신(迷信)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이용한 지혜로움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원래 음택(陰宅)이 득기(得氣)하면 생인(生人)이 수복(受福)한다"라는 불가사의한 동기(동기)응응(同氣感應)의 원리에서 비롯된 다.

사람을 비롯한 우주만물은 고유의 물질 원소로 형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원소는 자체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독특한 진동(진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 속을 떠도는 이 에너지 파장들이 같은 종류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날 경우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여 이를 "동기(동기)응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대략 부모로부터 고조 부모까지의 묘소에서 유골이 수맥(수맥)을 받으면 그 수맥(수맥)이 후손들 모두에게 전달되어 각자의 흠에서 수맥(수맥)이 나타나다가 그 묘소의 수맥(수맥)을 물리적으로 차단시키면 후손들의 몸에서 나타났던 수맥(수맥)도 즉시 중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기이한 일로서 일종의 동기(동기)응응(同氣感應)의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유골이 땅속에서 다시 생명(生命)을 시작하여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상의 유골이 땅속에서 생(生)기(氣)를 얻어 편안하면 그 후손들이 복(福)록(祿)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그와는 반대로 사기(邪氣) 또는 수맥(수맥)을 받아 고통(苦痛)스러운 재(災)禍(禍)를 입게 된다는 뜻도 내포된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골을 화장하면 동(동)기(동기)응응(同氣感應)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길흉(길흉)화복(화복) 발생(發生)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考)해 볼 때 조상의 유골을 보존(保)할 것(것)이나 아니면 화장(火葬)할 것(것)이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여(여)건을 감안(考)하여 각자(各)가 판단(判)할 몫(몫)인 것이다.

권경채 씨는 앞으로 국내에 보급이 끝나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에도 진출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권경채 씨(우리발명동우인회 회장·공인회계사 대표)는 지난 8월 11일, 사 회단체 시민모임인 선광회 회장으로서 다년간 자비로서 정박아, 불우이웃노인들 기 등 자선사업을 하였으며 이와 겹쳐서 86년 1월초, 강동·송파(송파)진화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에 권경채 씨(뉴스타호텔사장 겸 회장)와 수석상임부회장을 맡아, 종친회 축진규약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현재에도 동대문·종로(종로)진화회 부친한 것을 활성화 진작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하고 있다. 이 '시큐리티 20초' 제품사업은 국내외의 세계적인 특허·발명품으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향후 18년간 독점판매권을 소유하고 판매가 지속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며 현재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다.

문의처 019-208-1892(권경채 회장)

(권오복 편집위원)



시큐리티 20초 상품

특허증



Tax Accounting Corporation
현빈세무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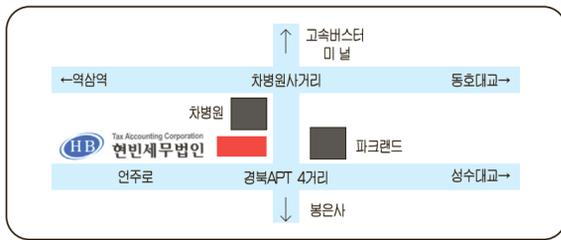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표세무사 권영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중원 감사
- 북아공파 34世 경북포항



사무실 약도

역삼동 경복아파트 건너 차병원 방향 20m 왼쪽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 봉암빌딩 2층
전 화 : 02)538-2244 팩스 : 02)562-7007